

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.

<보도내용>

- 2026.8.13.(목) 한국경제는 「교육교부금 손질... 미래기금에 ‘인재·교육계정’
뒤 他부처도 쓴다」 제하의 기사에서,
 - “기획예산처와 교육부는 초과세수 등을 재원으로 신설하는 미래대응기금에
인재·교육계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.”
 - “미래대응기금은 기획예산처가 신설하는 기금인 만큼 기획예산처 주도로
교육부뿐만 아니라 과기정통부 등 인재 관련 부처가 함께 활용하는 방향이
될 전망이다.”라고 보도하였습니다.
- 2026.8.13.(목) 경향신문은 「교육교부금 현행보다 줄면 ‘미래대응기금’에
차액 배정한다」 제하의 기사에서,
 - “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
개편하면서, 새로 산정한 교부금이 현행 기준(내국세의 20.79%)에 미달하면
그 차액을 미래대응기금 내 인재·교육계정에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.”
 - “내국세에서 일정 기준을 넘는 추가세수분은 미래대응기금으로 조성하고,
나머지 재원을 토대로 기획처가 제시한 새 산식을 적용해 교부금 총액을
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.”라고 보도하였습니다.

<관계부처 입장>

□ 교육부와 기획예산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합리적 개편을 위해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

○ 다만,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으므로,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.

담당 부서	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	책임자	과 장	권삼수 (044-203-6636)
		담당자	사무관	박지산 (jspark2492@korea.kr)
	기획예산처 지출혁신과	책임자	과 장	문상호 (044-214-1870)
		담당자	사무관	양성철 (yg1102@korea.kr)

